권태기 없는 인간관계의 비법

(전도서 4:1~16)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권태기 없는 인간관계의 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권태기 없는 인간관계의 비법'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혼족'이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고, 혼밥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며, 혼행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든 혼자 해야 속이 편합니다.

이런 혼족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아일보의 2020행복원정대 취재팀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20대 청년 천 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행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백 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2%라고 합니다.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아닌 실제 만나는 친구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약 다섯 명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오백 명이 넘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조차도 실제 친구는 약 일곱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는 1%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난다고 해서 다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55%의 청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고, 40%가 넘는 청년들은 인간관계에 회의감과

피로를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73%는 더 이상 온라인상의 친구를 늘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족이 유행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인관관계에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실제 인간관계에 쏟을 힘이 없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 매달려서 말하고 답하는 생활을 몇 시간이나 하다보면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청년들이 남녀관계에 대한 권태감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무함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이유를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권태기입니다.
'권태(倦怠)'는 싫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의 유형들이나 우리가 체감하는 권태감의 이유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인간관계의 허무함이나 우리가 느끼는 권태감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공허하고 허무하게 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학대자와 학대를 받는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대를 해도 허무하며 학대를 받는 사람은 허무한 가운데 고통까지 받습니다. 2~3절을 보면 학대 받는 자의 괴로움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학대를 받을 바에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4~6절까지는 인간관계에서 경쟁으로 인한 뒤틀림이 생겨남을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진 자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해지고, 진 자는 이긴 자를 시기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경쟁은 부부간에서조차 일어납니다. 내 말로 배우자의 말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혼족과 같은 경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8절을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

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긴 이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 모으고 혼자 쓰고 혼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회의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느낀 부담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9~12절까지는 친구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동무가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속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체로 의미가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의 의미는 역시 7절의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면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속담은 동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삶도 혼족의 삶처럼 헛된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학대를 하는 자들이든 학대를 받는 자들이든 그들끼리 동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무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의 예는 모두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용과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상대방의 용도를 발견함이 문제입니다. 남녀관계의 권태기는 보다 노골적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는 것을 요즘 말로는 썸 탄다고 합니다. 가슴이 요동치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찌릿찌릿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학대자와 피학대자로 인간관계가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소비하기 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썸 탄다'라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채울 용도로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가치가 떨어지면 관계에 싫증이 나고 게을러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귀찮고 함께 있음에도 연애 때와 같은 느낌이 생기질 않습니다. 권태는 용도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왜곡된 인간관계들의 이유도 이 권태 때문입니다. 타인을 나의 기쁨과 만족의 용도로 사용했기에 그것이 소진될 때에 권태가 나타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 비등할 때에는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면서 우월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서 벗어나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마치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찾듯이 계속해서 왜곡된 용도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선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그들에게서 용도를 발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는 용도를 발견하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내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들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권태감을 느끼고 다른 이성에게서 신선함을 느끼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배우자에게서 용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태는 곧 용도가 사라졌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쉽게 말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권태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이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기쁨과 만족의 재료로 삼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곡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관계였습니다. 결코 서로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땅 에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아담은 하와에게 어떤 용도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아담에게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서 용도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도거리가 되셔야 삶에서 권태가 사라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권태보다는 차라리 죽음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싫증을 느끼는 권태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조차 싫증은 납니다. 돈에게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용도를 기대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해 아래 있는 어떤 것이든 용도를 발견하려 할 때에 반드시 권태는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는 학대로 나타납니다. 학대하는 자는 학대받는 자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힘이 없으니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학대가 없는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다 헛되다고 보았습니다.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학대를 넘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만족은 누릴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용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이웃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그들의 행동과 행위에 맞춰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사랑(Blind love)입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풀어서 설명해봅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본래 부부간에 권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태를 느끼게 된 이유는 서로에게서 용도를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연애 할 때에, 결혼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연인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에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에 흔히들 '나는 네가 필요해(I need you)'라고 하지만 이 말이 참 괘씸합니다.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지언정 결코 필요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를 추구했기에 그 용도가 사라짐과 동시에 권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상태로 비어있어서 흡입력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흡입력은 24시간 작동하며 눈에 보이는 대상들로부터 용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보다도 십자가를 먼저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도록 유지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고백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웃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사랑스러워야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대상과는 상관없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못될지라도 나에게서는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웃에게서 필요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모든 인간관계의 권태기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

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러한 사랑에는 짜증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권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일이 잘 안되고 성적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와 격려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나무라야겠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손상될까 염려해서 나무라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용도를 찾아 관계한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이 허무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태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권태 없는 부부 관계, 권태 없는 부모자식 관계, 권태 없는 친구 관계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은 먼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기쁨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만족은 운명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고, 이웃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생애에 권태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